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 입당송 | 시편 66(65),1-2

온 세상이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 제1독서 | 사도 5,27ㄴ-32.40ㄴ-41

화답송 | 시편 30(29),2와 4.5-6.11-12 그리고 13ㄴ(◎ 2ㄴ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

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 제2독서 | 묵시 5,11-14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 복음 | 요한 21,1-19 <또는 21,1-14>

## 영성체송 | 요한 21,12-13 참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박정우 후고 신부 |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기는 했지만, 아직 스승의 부재 상태에서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은 다시 호숫가에 고기잡이하러 갑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아침이 될 무렵,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 같은 도움을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 결과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제자들은 그제야 스승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밤새 고기잡이로 지쳐있던 제자들을 위해 직접 숯불을 피워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빵도 마련해 주시며 “와서 아침을 먹어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정하게 건네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함께 나누는 이 황홀한 식탁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밤새 그물을 던지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힘들었지? 앞으로 내 제자로 살아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가야. 처음에는 뜻대로 잘 안되고 박해도 받을 거야.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 너희가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먼저 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오늘처럼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될 날이 올 거야.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할게!” 이런 묵상은 오늘날에

도 실패와 좌절이 일상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며 성체성사의 은총에서 재현됩니다.

식사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 당신의 “어린 양”을 돌볼 사명, 즉 교회에서 최고 목자의 권위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에 앞서 세 번이나 주어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려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양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당부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충분하다고 여기셨을까요?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1)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이런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닐까요? 사실 베드로는 “나를 따라라.”라는 말씀대로 마침내 예수님과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5월 첫 주일은 ‘생명 주일’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라고 하신 착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웃을, 특히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한 이들의 생명을 돌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제자들처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맺는 깊은 인격적 친교 안에서 사랑의 능력을 키우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면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하신 주님의 당부를 더 잘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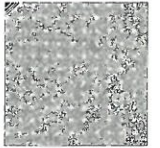
고창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요한 21,13)**

혹독한 겨울을 견디어 내고 화사한 꽃이 피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꽃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과 숯불에 구운 고기를 주시듯, 꽃은 벌에게 꿀을 내어줍니다. 꿀은 벌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은 제자들은 생명을 얻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회복합니다. 오늘 성체를 받아 모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다.



홍덕희 아녜스 | 가톨릭사진가회



홍진호 제노 | 첼리스트

## 나의 첫 여름 성경학교

어린 시절, 친척 형들과 노는 게 마냥 좋았던 저는 할머니가 열심히 다니셨던 교회와 친척 형들이 다니던 성당을 동시에 왕래하며 줏대 없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철없고 순수했던 어린아이의 감성에는 두 종교의 비슷한 듯 다른 모습이 오히려 재미있게 느껴져서 미사와 예배를 하나의 놀이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예뻐해 주셨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호칭부터 체계 등 많이 다른 두 곳에서 저는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의지와 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서툰 글솜씨지만 용기를 내어 글을 기고하게 됐습니다.

온 천지가 푸릇푸릇한 식물로 가득했던 작은 분교였습니다. 성당 주최의 여름 성경학교에 처음으로 참가했던 날, 전날 밤부터 기대에 부풀어 잠을 설쳤지만, 피곤한 기색도 없이 아무지게 짐을 챙겨 도착한 곳에는 수녀님과 지도 선생님들께서 흐뭇한 미소로 친구들을 맞아 주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친척 형 뒤꽂무니만 졸졸 쫓아다녔는데, 조별 미션을 수행하면서 조원들과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거의 마지막 미션에 다다른 저희 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치어있었지만, 꼭 1등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왼쪽 귀에서 뭔가 이상을 느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귓속에서 물이 파도를 치는 느낌이 나면서 나중에는 어지럼증까지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알았던 사실이지만 중이염이었습니다. 아마도 쉬는 시간에 물장구를 치며 놀다가 그만 귀에 물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고통이 심해져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 처방을 위해 양호실로 옮겨졌고, 결국 저희 조는 저 때문에 미션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병원으로 가 적당한

치료를 받고 나서야 같은 조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찾아가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결심하고 몇 주 뒤에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저를 환호로 맞아주며 커다란 도화지에 빨리 나아가서 같이 놀자는 글과 함께 수료식 사진을 선물로 주는 바람에 저는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어쩔 그렇게 맑고 순수했을까요. 무슨 큰일이라도 치른 것 마냥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었는데, 친구들이 만들어준 그때의 그 장면은 저에게 꽤 중요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로 인해 손해가 생긴다면 다 큰 어른이 된 지금도 상대방의 안위보다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연스럽게 익어 가는 따듯한 마음씨,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토록 반짝이고 예쁜 기억이 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하느님의 은혜인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몽클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15

#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부활은 항상 십자가 죽음과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킨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사제가 백성 전체를 대표해 짐승의 피와 속죄 예식을 봉헌함으로써 하느님 백성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 새로운 예배와 참된 속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피를 봉헌하시어,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代贖, 남의 죄를 대신해 속죄하거나 대가를 치르고 풀러나게 하는 것)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화해(=속죄)와 구원을 의미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어그러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며,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정화,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 죽음의 대속적 의미 대신 여러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를 들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속고할 가치는 충분하지만, 대속적 의미보다 더 나은 해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인간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고, 죽음이라는 절망의 상황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통과 죽음을 이겨내는 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당신을 따르라 하십니다. 이 길은 힘들고 어렵지

만, 갈 수 있는 길이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장소이고, 방법이며,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나에게 십자가란 어떤 것일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십자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그럴 수 있으며, 자신의 현실이나 미래일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이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겁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느님과 기도하고 일치하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곤 합니다. 우리 삶이 더는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영어에 'nowhere'(더이상 아무것도 없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느낀 절망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단어는 'now'+ 'here'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할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안에서 삶의 의미를 묵상하고 발견하며 부활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1코린 1,23-24)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치료비 지원 사업

# ‘엄마’라는 말을 듣는 것이 소원입니다

함박웃음을 지으며 엄마 품에 꼭 안기는 건우(남, 6명)는 얼핏 보면 또래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6살이 된 건우는 보조기 없이는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아직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웅얼이로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건우는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처음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엄마는 매일매일 울면서 아이에게 아무 문제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생후 2주 만에 대뇌에 갈라짐이 있는 희귀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해 대뇌에 비정상적인 갈라짐이 있어, 성장이나 발달이 늦어지고, 지적장애나 운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건우의 경우는 오른쪽 뇌에 큰 갈라짐이 있어 왼쪽 몸의 마비 증상과 느린 언어 발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장기인 건우는 척추와 발목, 어깨 등이 한쪽만 마비되는 영향으로 몸의 틀어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우네는 미혼모 한 부모 가정입니다. 건우 엄마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갈등이 심해 성인이 된 후 바로 독립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건우 아빠를 만났는데, 임신 7개월 무렵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막막함에 아이를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엄마는 생명을 선택했고, 미혼모 시설의 도움을 받아 건우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생계와 아이의 치료가 힘겨워 부모님께 도움도 청해봤지만,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홀로 아이의 양육과 치료를 모두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근로 활동은 전혀 할 수가 없어서 현재 건우 엄마는 월 60만 원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아이의 치료비를 감당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병원을 찾아가 치료해야 하는 아이 병원비는 매달 2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건우의 치료를 위해 아이와 함께 지내던 전셋집도 처분하여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건우는 손의 기능도 많이 좋아졌고, 근력도 늘어나 현재는 안정적인 자세로 좀 더 오랜 시간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건우 엄마의 소원은 건우가 혼자 일어나 걸으며, ‘엄마’라고 또박또박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장 기쁨 곳도 없고, 경제적, 정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루하루 나아지는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힘을 얻습니다. 엄마와 건우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자비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건우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총 지원금 3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인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치료비 지원 사업’에 지원됩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2년 4월 30일-6월 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건우를 위해 쓰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http://obos.or.kr>)-한마음한몸소식-본부소식’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 영화 '코다' 우리도 당신만큼이나 건강합니다!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코다(CODA).  
'청각장애를 가  
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청력을

들에게는 듣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아닌 정체성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루비의 가족 역시 건강합니다. 가난하지만 힘을 합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장 감독관의 횡포에 항  
의하고, 잡은 생선을 헐값에 경매에 넘기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일에 나섭니다. 딸의 꿈을 위해 당장 사람들  
과 소통을 할 수 없는 어려움도 각오합니다. "넌 어부가  
아니야. 여기 남아있으면 안 돼.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 가족은 잘 살았어." "난 네가 너 자신을 알아서 다  
행이라고 생각해. 넌 용감한 아이야."

가진 자녀들'(Children Of Deaf Adult)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가족의 수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다  
른 사람들의 말은 가족에게 수화로 전달합니다. 소리  
언어와 손짓 언어를 서로 연결하면서 들리는 세상과  
들리지 않는 세상, 가족과 타인들 사이를 끝없이 오가  
야 합니다.

열일곱 살인 루비(에밀리아 존스 분)도 그렇게 살고 있습  
니다. 어촌 마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아버지 프랭크(트  
로이 코처 분)와 오빠 레오(다니엘 듀린트 분), 세상 밖으로 나가  
길 거부하는 어머니 재키(말리 매트린 분)의 입과 귀가 됩니  
다. 함께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고, 잡은 고기를 팔고,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에 어김없이 나타나  
통역을 해야 합니다.

집안에서는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현실, 들리지 않는다고 무신경하게 일으키는 가족들의  
온갖 소음, 장애 가족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  
기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힘들고 답답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의지하고, 그 때문에 화가 나 소리  
를 질러도 듣지 못하는 가족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루비는 이런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드러냅니다.

영화 <코다>는 그런 그녀가 누구 못지않게 건강하다  
고 말합니다. 10대 소녀답게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  
고, 설레는 첫사랑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로 고  
민하고 방황하면서 들리지 않는 세상도 이해합니다. 그

단지 귀로 듣지 못할 뿐, 그들은 누구보다 루비의 노  
래에 감동합니다.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과 박수로, 딸  
이 노래하면서 수화로 전해주는 가사로, 딸의 목을 감  
싼 아버지의 손에 전달되는 소리의 떨림으로. <코다>는  
잠깐 소리를 지우고는 우리도 그렇게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귀로만 듣는 우리에게 그 시간은 적막일 뿐  
이지만, 루비의 가족은 소리 없는 노래에서 딸의 간절한  
꿈과 사랑을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청각장애인 베로니크 폴랭의 자전적 소설  
『수화, 소리, 사랑해!』가 원작인 <코다>에 올해 미국 아  
카데미는 작품상을 안겼습니다. 실제 청각 장애를 가진  
배우인 트로이 코처는 남우조연상까지 받았습니다. 동  
정이나 배려는 아닐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할 것인  
건강한 삶, 아름다운 가족 사랑에 대한 찬사일 것입니  
다. 거기에 대상의 차별이나 구분이 필요할까요. 루비  
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처럼 **비장애와 장애는 어쩌면 우  
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양면(Both Side)일지 모름니  
다. 함부로 나눌 수 없고, 나누어서도 안 되는.**

# 과학과 신앙 간의 부적절한(?) 접목 시도의 심각한 문제점

김도현 바오로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QR을 스캔하시면  
지난 과학칼럼 주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두 달의 글을 통해 저는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던 책인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모토 마사루, 2002년 출간)와 『더 시크릿』(론다 번 지음, 2007년 출간)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적들에는 공통적으로 우주적 기운, 우주 에너지, 정신 에너지 등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라는 개념은 철저히 물질적인 개념이라는 것 말입니다. 에너지는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한 양으로 정의되고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의 칼로리가 얼마다.’라고 할 때 그 칼로리가 바로 에너지인 것입니다. 에너지는 측정이 가능한 물질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사이비 과학 내지 사이비 영성에서는 이 에너지 개념을 영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교묘하게 확대 적용’시켜 해석함으로써 모호한 영육일원론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이런 식의 영육일원론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과도하게 육체적 건강을 의식하고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게 되면서 동시에 육신의 죽음 이후의 내세, 즉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태도 안에 이러한 영육일원론이 예상외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는 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단지 학업, 취업 문제로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을 놓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과학적 언어를 신봉하는 과학만능주의와 절묘하게 결합된 영육일원론’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육일원론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시크릿』에 따르면, 각자 의지와 생각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 개개인의 위치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신적 위치로 자연스럽게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에 속한 여러 사상, 영성들은 공통적으로 인간 개개인을 신적 위치로 끌어올리는 식의 주장을 펼칩니다. 개개인의 수련을 통해서, 의지와 생각의 조절과 통제를 통해서 ‘너도 신이 될 수 있어!’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창세 3,4-5)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유혹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입니다. ‘과학만능주의와 절묘하게 결합된 영육일원론’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영육일원론은 결국 무신론의 한 방식인 것입니다.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성모 성월 기도를 바치시기 바랍니다(가톨릭 기도서 33쪽)**

**오늘(5월 1일)은 ‘생명 주일’입니다**

‘생명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성소 주일 행사**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요한 11,28)를 주제로 5월 8일(주일) 오전 10시~오후 4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혜화동)에서 성소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 해당 Q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주일 행사 참석은 월모임 출석과 동일합니다.



QR 신청

대상: 교구 양업에 등록된 중1~고2 예비신학생(신청제)  
신청: 성소국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 참조

<b>성소 주일 미사(11시)</b>		· 집전: 유경춘 주교 외 사제단(신학교 대성당)
<b>기념 행사</b>	(12시 30분~15시 30분) 신학교 전 구역	· 구석구석 가는 곳마다 · 다시 시작된 성소 주일을 기념하며 · 도전 양업 골든벨 · 메타버스 수단 입어보기 · 성가 제목 맞추기 · 어머니께 청하오니 · 예수 마음 탁구 코칭 · 인생 내 컷 · 차라! 얻을 것이다! · 패밀리아 (가족으로) · 학사님들의 이모저모 · 성체강복(15시 30분~16시, 대성당)
	<b>상설 행사</b>	· ICECREAM EXPRESS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 폐막에 따른 기도 요청**

교구장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 반포 5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2021년 3월 19일~2022년 6월 26일) 폐막을 준비하며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 1일부터 폐막일(6월 26일)까지 가정 공동체의 성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다음의 ‘가정을 위한 기도’나 가톨릭 기도서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가급적 가족과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바쳐주길 요청하셨습니다.

<b>가정을 위한 기도</b>	하느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당신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화를 간직하고
	인내와 친절로써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게 하소서.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 작은 교회로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입니다**

끼니때마다 한 줌의 쌀을 예수님과 이웃의 몫으로 모아 봉헌합니다. 가정에서 봉헌한 쌀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본당 봉헌일(5월 22일)에 봉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모아진 우리들의 정성은 인종, 종교, 국적을 초월하여 고통 받는 전 세계 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문의: 02)774-34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5년 5월 8일 심재덕 마르코 신부(37세)
- 1966년 5월 2일 김재용 요셉 신부(29세)
- 1981년 5월 7일 정규만 마르코 신부(66세)
- 1982년 5월 8일 백일성 도미니코 신부(50세)
- 2012년 5월 8일 박준영 루도비코 몬시뇰(70세)

**교구청알림**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http://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접수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5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주제: 창조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http://www.samok.or.kr))에서 동영상 강의 제공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된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16차 미사 5월3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신의주 본당, 마전동 본당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 문의: 02)727-2420

**5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5월2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패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유미애 조각초전: 1전시실  
가톨릭청년 성서모임 50주년 기념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5월4일(수)~9일(월)

**2022 빈민사목위원회와 공단기가 함께하는 ‘함께 꾸는 꿈(CUM) 희망 프로젝트’ 교육생 모집**

대상: 서울 거주 19~34세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한부모·조손가족 보호대상, 자립준비청년 등 / 교육과정: ‘공단기’ 공무원 전직렬 온라인 강의 지원  
신청기간: 4월18일~5월31일 / 문의: 02)777-7261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교육 프로그램 안내  
모집과정: (온라인) 2022년 영성심리 아카데미(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 (대면) 가톨릭영성심리 치유와 봉사 수료과정(기본과정)  
상세안내 홈페이지 참조 / 02)727-2126(tcpc@seoul.catholic.kr)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수제 목주 전문반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6기·청년 13기 개강**  
 때: 4월26일(화) 14시·4월27일(수) 19시·4월26일(화) 19시·청년반 / 회비: 7만 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년 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 상담, 한국어, 유아, 평생, 특수, 직업특수, 진로진학 / 모집: 5월2일(월)~15일(일)  
 면접: 5월27일(금) 18시30분 / <https://ged.catholic.ac.kr>  
 문의: 02)2164-4787·4176-4173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2년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2차 전형 원서접수: 5월9일(월)~19일(목)·전형일 6월4일(토) / 문의: 02)705-8668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20대를 위한 이나시안리더 양성 과정(마지스터클 1기)**  
 대상: 19세~29세 가톨릭 청년 / 활동 기간: 6월~12월  
 활동 내용: 이나시오 영성 강의, 성찰 나눔, 기도 및 영적면담, 8월 제주 도보 순례, JPIC 활동 참여, 12월 캄보디아 봉사 체험 / 회비: 15만원(캄보디아 왕복 항공료 미포함, 필요한 청년에 한해 지원 제도 운영)  
[linktr.ee/magis.kr](http://linktr.ee/magis.kr)에서 신청링크 통해 지원서 접수 (5월 중 면접을 통해 선발) / 인스타그램: @magis\_kr  
 문의: 02)3276-7706(magis.kr@gmail) 예수회 청년센터

**최양업 신부님 선종지 미사**  
 때, 곳: 매주(수) 오전 11시, 문경 진안리 성지(주최) 미사 후 문경 성지안내(진안리·마원·여우목·한실) 중식 제공, 사전연락 요망 / 문의: 010-9944-0145

**갯세마니 첫 금요일 성시간·미사(말씀의 선교 수도회)**  
 대상: '예수성심의 온전한 사랑' 말씀의 치유를 바라는 신자 / 문의: 02)312-7211 선교 사무실  
 때, 곳: 5월6일 19시~2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경동)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운상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5월4일(수)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령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미사  
 때, 곳: 5월6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인간**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여성의 전화상담**  
 전화 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가족 및 관계 갈등 / 전화상담만 가능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씨튼영성센터 심리상담소(성북동)**  
 내용: 우울, 불안, 공황, 분노, 대인관계 등  
 대상: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 문의: 010-5113-3005 박영미 수녀, 010-9016-1918 이선자 수녀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http://www.karf.co.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릿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4월~5월(두 달)동안 7월~8월 성수기 예약시 15% 할인 적용 /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상처받은 마음치유와 자아 및 관계 회복	5월17일~6월28일
전문심리치료	매주(화) 10시~13시(7주)

전문의료 /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관계, 강박행동 등

**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iscen.or.kr](http://www.jji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우울·분노·성격 등의 어려움, 부부 및 가족상담-부부갈등·의사소통의 어려움·자녀문제로 인한 갈등, 스트레스-직장 내 어려움·대인관계

**유판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영성상담, 진로검사, 화상(Zoom) 상담 가능 /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9295-5912([www.dstcoun.net](http://www.dstcoun.net))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
개인상담	우울 및 대인관계 어려움, ADHD, 심리검사
교육	미술심리상담사과정·5월16일~6월27일 매주(월) 7회

**직업모집**

**생활성서사 월간편집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교정교열 및 기사 작성 가능자  
 업무: 월간 생활성서 취재 및 편집 / 이메일 문의의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기사(해당자)  
 5월20일까지 이메일(bibledit@hanmail.net) 접수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중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직원 모집**  
 분야: 푸드뱅크·마켓 직원(계약직) / 대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종보통 운전면허 및 운전 가능자  
 접수 방법 및 기타사항은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조  
 문의: 02)2235-4000 중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경찰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선교사 교육 운영 및 사무행정·회계(계약직, 육이후직 대체) / 근무기간: 6월~2023년 11월(18개월)  
 대상: 견진을 받은 교우로 사무행정 및 회계업무 가능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5월22일(일) 18시까지 이메일(catholicpolice1@seoul.catholic.kr) 접수 / 문의: 02)742-9473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영아능통자, 아시아 지역학·국제 교류 관련 전공자 우대 / 문의: 02)727-2529  
 분야: 계약직 1명(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심사 및 면접,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5월8일(일)까지 이메일(aoinssa@seoul.catholic.kr) 접수  
 홈페이지([www.martyrs.or.kr](http://www.martyrs.or.kr)) 주요사업 참고

**신정3동성당 사무장·주방근무자 모집 / 문의: 02)2060-8051**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5월13일(금)까지 방문·우편(우 0805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7길 60-10) 접수

사무장 1명(계약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회계 업무 가능
주방근무자(계약직)	PC 가능한 분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경험자 우대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모집**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동: 주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대상: 20~30대 남녀 가톨릭 신자  
 준비: 가톨릭성가 1곡 또는 자유곡 1곡  
 오디션: 5월8일(일) 오후 5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 / 카톡ID 친구추가: LogosChoir  
 네이버 검색: 로고스합창단 / 문의: 010-6814-6010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5월4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중신부 특강 및 군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5월2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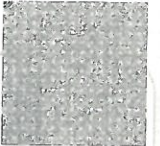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5월6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1층 / 문의: 02)929-2977

**박준영 몬시뇰 선종 10주기 추모미사**  
 때, 곳: 5월8일(일) 오전 10시30분, 세종로성당  
 문의: 02)733-1471 세종로성당 사무실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적)**  
 내용: 교해성사, 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5월7일(토) 오전 10시~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마리아의 종 수녀회	5월8일(일)	본원(돈암동)	010-6826-6882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5월14일(토) 14시~15일(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5월14일(토) 14시	본원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5월21일(토) 10시	수도원(성북동)	010-6608-3217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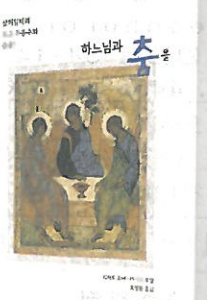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기도 맛들이기**

양승국 지음  
생활성서사 | 184쪽 | 1만3천원  
문의: 02)945-5987

이 책은 '양승국 신부의 친절한 기도 레슨'의 다음 권으로, 기도하고 싶은 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는 책이다. 저자는 일상에서 경험했던 기도의 어려움과 체험을 진솔하게 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며 기도하는 법을 알려 준다.



신간  
**하느님과 춤을**

리처드 로어 · 마이크 모렐 지음  
프란치스코출판사 | 444쪽 | 1만5천원  
문의: 02)6325-5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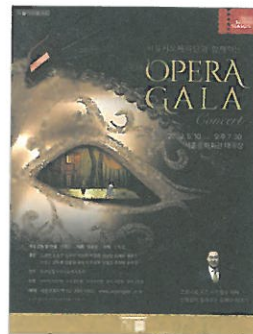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책은 신학을 다루지 않는다. 삼위일체 신학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이끌어 준다. 나의 영적 인식 체계를 바꿔주고, 내가 삼위일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더 쉬운 언어로 저자의 체험을 공유한다.



신간  
**이종한 신부의 성화 이야기 2**

이종한 지음  
프란치스코출판사 | 192쪽 | 1만6천원  
문의: 02)6325-5600

이탈리아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매혹된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특유의 거침없는 표현으로 저자는 교회와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을 진솔하게 이끌어 낸다. 화려하게 잘 그려진 유명한 작품 감상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성찰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



음악회  
**서울시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입장료: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 문의: 02)399-1000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인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10명 30% 할인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5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와 베르디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등 가장 대중적인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곡들로 무대를 꾸민다.



전시  
**조이빌리지 이야기 : 발달장애 작가와 함께하는 투게더 展**

일시: 5월 4일(수)~10일(화) 오전까지  
무료전시 / 문의: 031)947-2720  
오프닝 행사: 5월 4일(수) 11시  
후원: 키움증권,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조이빌리지 이야기: 발달장애 작가와 함께하는 투게더 展'이 5월 4일(수)~10일(화), 경인미술관(인사동) 1관에서 있다. 그동안 후원받았던 그림과 대건 카리타스의 회장이자 서예 작가인 도현우 신부의 글씨, 발달장애인 친구들의 작품, 조이빌리지의 교사 어머니들의 공동작품을 전시한다.



라디오  
**cpbc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일시: 매주 월~금 17시~18시  
문의: 02)2270-2114

봄 개편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이 코너는 뉴스 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면서 뉴스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고, 뉴스가 국민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본다. 또한 하루의 뉴스를 정리하고,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대해 세상을 읽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한다.

제2227(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명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li> <li>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창년 20, 창년 30)</li> </ul>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li> </ul>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전신자 봄맞이 대청소 및 국수잔치

일시 : 5월 1일(주일) 교중 미사 후

개인 준비물 : 걸레, 고무장갑

청소 구역	구역
대성전 1층	4
대성전 2층	3
지하소성전 및 통로	1
지하식당, 이레벤드실, 지하주차장	5
교육관 1층	8
교육관 2층	10
교육관 3층	7/연남기타
영안실, 육각계단	6
주차장 및 화단 주변	2
화장실 천장, 교육관 계단, 엘리베이터 내부	9

※ 각 단체 사물함 정리

### ◎ 성모의 밤

일시 : 5월 14일(토) 오후 8시 / 대성전

준비물 : 묵주

초(성당마당에서 판매)

※ 꽃을 봉헌하실 개인 또는 단체는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 신심 미사 : 5월 7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5월 8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3/23~4/26).

성명	세례명	구역/반
홍은하	안나	1-1
성하국	안토니오	1-1
김예린	리카르다	3-3
김태송	안셀모	3-3
김종건	요한보스코	4-1
유민우	요셉	5-2
김하영	유스티나	5-2
공나형	베로니카	5-3
노푸름	매임데레사	6-4
김의중	스테파노	7-5
박한슬	레지나	10-1
박진열	크리스피노	10-3
장현정	효임골롬바	10-7

### ◎ 전입교우 환영식

일시 : 5월 8일(주일) 교중미사 후 도서실

※ 매월 둘째 주일 교중미사 후 전입교우 환영식이 있습니다.

### ◎ 사무실 휴무 안내

5월 5일(목)

※ 미사 지향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 ◎ 어버이날 카네이션 화분을 판매합니다.

일시 : 5월 7일(토)~8일(주일)

판매가 : 10,000원

### ◎ 반디주일학교 봄소풍

일시 : 5월 8일(주일)

장소 : 경북궁

문의 : 반디교감 (010-5091-1509)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오늘은 노비따스 음악 중·고등학교 후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4. 24)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00	758 (36.1%)	692 (33.0%)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 32,337,100원

### ◎ 연례회 감사헌금

고 박귀엽 마리아 상가 ..... 이십만원

고 김상열 베네딕도 상가 ..... 이십만원

### ◎ 감사헌금 (4월 18일~24일)

이난희 ..... 일백만원 이창수 ..... 일십만원

신옥분 ..... 삼만원 윤혜경 ..... 오만원

### ◎ 우리들의 정성(부활 제2주일)

교무금 ..... 11,240,000원

주일헌금 ..... 4,966,48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 2,049,000원

입당	135	봉헌	216, 512	성체	179, 166, 496	파견	244
----	-----	----	----------	----	---------------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 나이다